

북한 기도회

2024년 4월



1. 남북관계와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은 새해 들어 남한을 같은 민족이나 통일의 대상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와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 온 통일에 대한 방침을 전면 폐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남한을 위협하여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합니다. 앞으로의 한반도의 평화, 남북관계, 그리고 통일에 대한 많은 기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핵전략을 위해 버려진 통일이 오히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 복음적 평화 통일의 성취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남과 북이 다시 하나 되고 주님께 쓰임 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한반도의 평화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조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결국 북핵문제와 귀결됩니다.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체제 보장과 제재 해제를 얻어내려는 북한 당국은, 한반도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켜서 미국을 압박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협상의 장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연초부터 계속된 무기 개발 과시 및 각종 발사 시험 등을 잇달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11월에 있을 미 대선 등을 고려하여 고강도 군사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아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반도에 군사적 충돌과 피흘림이 아닌 평화의 소식이 들려오도록, 그리고 북핵 문제가 평화적 해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북한 주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북한은 김정은이 직접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언급하고 ‘지방발전 20x10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생활 형편이 열악하고, 특히 중앙과 지방의 격차가 큼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어지는 공장의 운영 및 원료조달은 각 지방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가동을 멈추는 것은 큰 죄라고 엄포를 놓고 있어 오히려 지방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북한이 자신들이 강조하는 이민위천에 진정성 있게 나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핵무기가 체제의 안녕을 보장할 수 없음을 깨닫고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경제제재로 인한 어려움이 해소되고 민생이 개선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빈부/지역격차가 완화되고 소외된 주민들이 생존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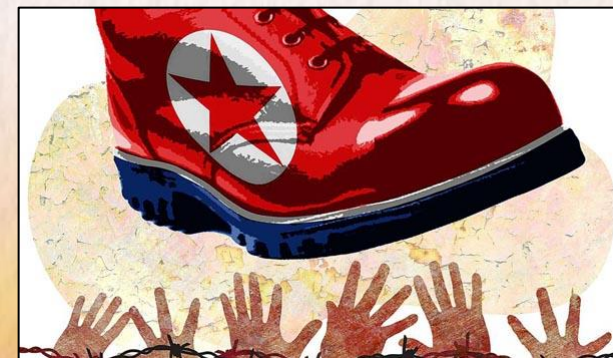


4.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법률과 강화된 단속 및 처벌로 한류 미디어를 포함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행태 척결을 위한 노력이 강도 높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기본적인 자유는 당국의 강화된 통제와 공포정치 속에서 침해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를 적대국으로 재정립한 만큼, 한류 문화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도는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북한의 비인간적인 억압과 통제, 그리고 과도한 형벌과 단속이 중단되도록 기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우리식의 인권이 아닌,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 생활 환경이 개선되는, 진정한 인권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5.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3년 4월 평안남도 순천시 동암리 지하교회 적발사건이 보도된 데 이어 선교현장에서는 여러 건의 지하교회 적발 사건 및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사건 소식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에 대한 억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 속히 중단되고 지하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갇혀 있는 성도들과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29조(성목화물, 색정, 및 미신전파죄)
성목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목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 같은 것을 보았거나 보관한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성목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목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같은 것을 만들었거나 류입, 류포한 경우에는 무기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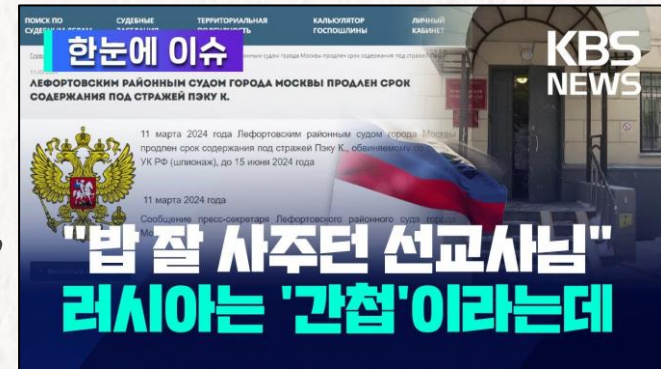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종교활동
관련 처벌 규정>



6. 해외 북한선교현장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에서 탈북민 사역을 하던 백 모 선교사님이 러시아 정보기관에 의해 체포되어 간첩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 선교사는 2월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수감 중인데, 러시아 법원은 6월 15일까지 간첩 혐의를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북러 관계 밀착으로 해외 북한 노동자와 탈북자 사역의 위축 우려가 높아지던 중에 발생한 이번 사건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는 해외 북한 선교 현장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절실함을 일깨워줍니다. 체포된 백 선교사님의 안전과 무사귀환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의 안전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7. 강제 북송의 위기에 처한 제 3국 탈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3년 10월 중국에서 600여명의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 된 것으로 알려져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아직 1천여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에 수감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송 당했을 시 경험하는 고문을 동반한 심문과 처벌을 고려할 때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중국에서 신앙을 가지게 된 탈북자들은, 이들의 신앙 및 선교사 접촉 여부 등이 발각될 경우 정치범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우리의 특별한 기도가 요청됩니다.

탈북민 강제 송환이 중단되고 붙잡혀 있는 탈북자들에게 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탈북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8. 북녘을 향한 라디오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끝났지만 여전히 북한의 국경 통제로 인적 왕래가 중단되어 있는 가운데 라디오 방송 사역은 막힌 담을 넘어 북녘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 생명의 강 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들이 제작, 송출될 수 있도록 방송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상 악화나 방해전파 등으로 인한 청취 장애가 최소화 되도록 기도합니다. 특히 북녘의 주민과 성도들이 강화되고 있는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단속 열풍을 잘 피해서 안전하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새번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